



2면

귀농·귀촌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음 10월 9일) 제3388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을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지역혁신사업 일환... 전북대 미래수송기기사업단 발대식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 참여기관장·기업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RIS 미래수송기기사업단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출범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대 RIS 미래수송기기사업단 출범

창의융합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목표

2028년까지 386억 투입... 활성화 협약 체결도

전북대학교 RIS(지역혁신사업) 미래수송기기사업단(단장 이덕진)이 20일 진수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5년간 총사업비 2,145억이 투입되는 전북대 RIS사업은 JB 지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전북대 미래수송기기사업단과 군산대 에너지신산업사업단, 원광대 농생명바이오사업단 등이 전북지역의 혁신인재를 양성한다.

이날 RIS사업의 주관대학인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양오봉 총장과 김관영 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과 참여대학인 군산대 및 원광대 총장, 시·도의원, 참여기관 및 기업 대표,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출범을 축하했다.

전북대학교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은 앞으로 2028년까지 약 386억의 예산을 투입해 미래수송기기 분야와 관련된 실무요소 기술을 겸비한 창의융합인재 양성과 수송기기 부품 전장화, 네트워크화,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그리고 전·후방 기업 수요 R&D 기반 미래수송기기 신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창의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 3개의 대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역 내 참여 대학교가 공동으로 인재 육성 및 연구 개발

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수송기기 분야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 등 지자체와 전북대 등 8개 대학, (사)캡티브종합기술원 등 8개 연구기관, (주)HR E&I 등 52개 기업과 미래수송기기 분야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2부 행사로 열린 학생과 기업 간 간담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역 내 우수 기업들을 소개하고, 지역학생들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기업 대표가 직접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우수 기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지역 내 취업 및 정주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미래수송기기 관련 생태계 조성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전북대학교 RIS미래수송기기사업단의 출범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 미래산업 발전과 지역 인재 교육 부문에 전북대학교 역할을 확대해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덕진 단장은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정주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래수송기기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의 인재 양성과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에 금융인프라·디지털생태계 조성

1조원 규모 복합금융·클라우드데이터·디지털혁신센터 들어서
도, 산업부·전주시·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15개 기관과 협약

전북에 1조원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 컨벤션·호텔 등 금융인프라와 디지털생태계 조성을 위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디지털혁신센터가 들어선다. (관련사진 3면)

전북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아토리서치(주), 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주), 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교육대학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5개의 관계기관과 함께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주)와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사업계획 발표,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파인애플트너스자산운용(주) 등은 전북혁신도시와 전주탄소산단에 2027년까지 전북국제금융센터, IT 창업지원을 위한 디지털혁신센터, 데이

터센터, 4성급 이상 호텔 및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고 230명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클라우드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년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해 전북의 공공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은 물론, 도내 중소 스타트업의 클라우드 도입과 지역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북 통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에 입점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중소 스타트업 지원 및 지역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혁신역량을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금융·IT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 도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최초 친환경 도심형으로 지어질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지역 IT산업과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총 수전용량 40MW의 서버 약 10만여대가 수용 가능한 규모이며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건립될 예정이다.

전북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리잡게 될 디지털혁신센터에서는 변화하는 IT산업에 맞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융합 등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적인 IT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술 지원 및 협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타운부지에 조성되는 디지털혁신센터를 포함한 전북국제금융센터는 데이터 금융을 선도할 핀테크 기업들이 입주해 IT와 금융을 연계한 데이터융합 산업 등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심으로 육성하고, 고급 호텔과 다양한 회의시설을 갖춘 전시컨벤션 시설이 조성돼 공공·학술·예술 행

사 개최에 따른 관광산업 발전 촉진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종합운동장 부지에 건립될 전주시 MICE 시설의 보조역할이자 금융산업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에 대한 지원 시설로 활용하게 될 예정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 최초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함께 디지털혁신센터가 건립되면 첨단 정보기술기업을 불러들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타운 부지에 금융센터를 비롯해 호텔, 컨벤션 센터가 들어섬으로써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다. 지역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국내 최고의 IT기업인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전라북도의 중심 전주의 디지털 혁신을 리딩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청년이 정착하고 출향 청년이 귀환하는 디지털 산업 도시로의 성장과 대변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금융타운과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산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생강' 현장 행정 추진

전북도가 국가중요농업유산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의 보전·관리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추진과정 점검과 준비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완주군을 방문, 현장행정을 20일 추진했다.

이번 현장 행정에는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과 권요안 전북도의원, 보존위원회 이민철 위원장과 완주군의회 의원이 참석했다.

완주생강은 600년 전통의 한국(토종) 생강의 역사와 독특한 저장방식 등의 특징으로 2019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았다.

완주생강 홍보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 설계를 올 12월부터 실시하는 등 아카이빙, 전통생산 및 저장 방식 전승·보전, 경제적 기반 마련, 홍보 등의 노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